

사회

이산가족 상봉 광주 김해룡·최명순 할아버지

“형님 제삿날이라도 알아야지”

“꿈에 그리던 상봉... 60년 한풀이 설렌다”

“60년 한을 풀게 됐어. 꿈에도 그리던 작은 형은 돌아가셨지만 혈육인 조카를 만나 생전 모습이라도 더듬어 볼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고, 큰 형과 작은 형이 평양에서 직공 생활을 했었지. 두 분 모두 돈 벌러 갔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 버렸지. 6·25 작전에 작은형이 광주에 떨어져간 것이 마지않아. 얼추 한 60년 가슴에 품고 살았어”라며 세월을 더듬었다.



김해룡 할아버지

나이가 79세, 70세로 적지 않은 나이여서 걱정이 되지 않는 바도 아니다. 황해도 금천이 고향인 최 할아버지는 15년 전부터 부모의 생일에 맞춰 제사를 지내고 있다. 최 할아버지는 “혼자 남쪽에 와서 사는 다, 고생도 많이 했지.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그러다분께 가족들이 더 보고잡더라고”라며 “이제라도 동생들을 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소”라며 희미한 웃음을 지었다.

“6억, 뇌물아닌 정치자금”

오현섭 전 여수시장 수취혐의 일부 부인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N건설 회장의 변호인은 “후배 정치인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제공한 정치자금일 뿐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조영업체 남 사장과의 변호인은 “돈을 주려고 한 대상은 오 전 시장이 아니라 김씨”라고 주장했다.



수확의 계절 20일 나주 산포면 들녘에서 한 농민이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있다. 최근 경운기나 트랙터, 탈곡기 등 농기계로 인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명주기자 namj@kwangju.co.kr

수확기 농기계 사고 잇따라

울 전남서 22명 사망

수확철 농촌지역 노인들의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7시10분께 고흥군 두원면 풍류리 풍류정류장 인근 수로에서 이 마을에 사는 송모(64)씨가 트랙터에 깔려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영전리 윤모(67)씨의 곡물 창고 안에서 윤씨가 벼 건조기에 끼어 숨졌고, 같은 달 25일 나주에서는 추수하던 60대 노인이 콤바인 전복 사고로 중상을 입기도 했다.

수갑이 기가막혀

저절로 풀리거나 열쇠로도 안풀려 119 출동

경찰들 제품 낚아 곤욕

수갑의 고장이 잦아 경찰이 체면을 구기는가 하면 피의자들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수갑을 채워놓으면 자동으로 풀리는 경우가 더러 있고, 열쇠로 잠금장치를 열어도 풀리지 않을 때가 많다. 이로 인해 종종 119가 출동해 수갑을 해제하는 곳이 못할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에게 채운 수갑이 스스로 풀리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피의자가 양 손목에 채운 수갑을 몇 차례 위 아래로 흔들자 자동으로 풀린 것이다. 현재 경찰에서 사용 중인 수갑은 A산업 제품이 대다수다. 이곳에서 생산된 수갑은 미국 제품보다 강도·경도·내식성이 낮다. 자주 사용할 경우 열쇠가 부러지거나 수갑을 조이는 톱니 날이 마모돼 풀리지 않는 결함이 있다.

나원침 (8148) 김중두



윤림동 아파트 화재

60대 부부 화상·질식

20일 오전 11시45분께 광주시 동구 윤림동 L아파트 3층에 사는 김모(69)씨의 집 작은방에서 불이 나 아파트 내부면적 115㎡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25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안방에서 자고 있던 김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며, 김씨의 아내 주모(69)씨도 연기에 질식해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프린터를 이를 동안 켜뒀다”는 주씨의 진술과 그 주변에 그을음이 많은 것으로 미뤄 프린터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이 아닌가 보고 김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양승희기자 yang@kwangju.co.kr

운동 궁하고 가스통까지 훔쳐

조선대 정이사 '정당성' 법원서 확인

옛 경영진 무효소송 패소

정이사 선출을 통해 정상화된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진에 대해 법원이 정당성을 확인했다. 조선대는 “(고) 박철웅씨 일가 등 옛 경영진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이사 무효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광주 성범죄 우범자 20명

경찰, 소재파악도 못해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광주 경찰이 관리 대상 성범죄 우범자 20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경찰청이 관리해야 할 247명의 성범죄 우범자 중 20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 올해 8월말 현재 광주 지역에서는 총 247명의 성범죄 우범자가 등록돼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신고율이 10% 미만, 기소율이 50% 미만으로 대다수의 성범죄자들이 상응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성범죄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에서 우범자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며 “현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소재를 하루빨리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50% 이상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옛 경영진 무효소송 패소

명 중 옛 경영진이 추천한 2명을 제외한 7명의 선임 절차가 무효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다.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 이사진의 역할 등에 힘이 실리게 됐으며, 옛 경영진의 주장과 활동 등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는 성명을 내고 “사필귀정의 판결이며 설립역사를 왜곡한 옛 경영진은 더 이상 추태를 부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자협은 교수협의회, 노조, 총학생회, 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 소송은 교과부가 선임한 이사 9

명 중 옛 경영진이 추천한 2명을 제외한 7명의 선임 절차가 무효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다.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 이사진의 역할 등에 힘이 실리게 됐으며, 옛 경영진의 주장과 활동 등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는 성명을 내고 “사필귀정의 판결이며 설립역사를 왜곡한 옛 경영진은 더 이상 추태를 부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자협은 교수협의회, 노조, 총학생회, 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 소송은 교과부가 선임한 이사 9

조선대 정이사 '정당성' 법원서 확인

옛 경영진 무효소송 패소 명 중 옛 경영진이 추천한 2명을 제외한 7명의 선임 절차가 무효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다.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 이사진의 역할 등에 힘이 실리게 됐으며, 옛 경영진의 주장과 활동 등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는 성명을 내고 “사필귀정의 판결이며 설립역사를 왜곡한 옛 경영진은 더 이상 추태를 부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자협은 교수협의회, 노조, 총학생회, 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 소송은 교과부가 선임한 이사 9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
교행직/농업직/기술직/소방직/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1월 1일 주야, 종합/단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김영면입학원 227-8088